

강론 ...

내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사람



김광태 신부
(사목국장)

전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꼽으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준비로서 독서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즉 미사 전례 때 기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파견된 이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제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가, 평신도 사도직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드리는 미사'로 재연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일,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일,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는 일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놓치면 이 모든 노력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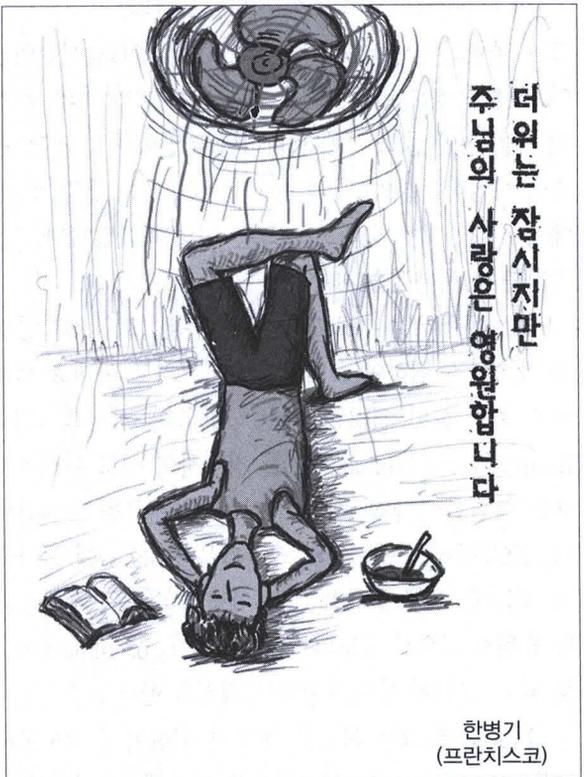
그것은 바로 전례와 일상 삶의 조화라는 측면입니다.

즉 전례는 참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고, 진지한 삶의 바탕에서 거행될 때 전례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삶을 떠난 전례는 형식으로 그치고, 전례와 무관한 삶은 위선이 됩니다. 미사 전례 때 거행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숲머리 생각



더워는 잠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한병기
(프란치스코)

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1884-1941)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랑의 순교꽃으로 피어난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가 아직 어린 시절이던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께서 빨간 꽃과 하얀 꽃의 두 개의 꽃을 손에 들고 그에게 나타나 제안했다고 한다.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꽃과 순교를 상징하는 빨간 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두 가지를 다 택하겠습니다.”

그는 콘벤투알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그의 신학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리고 사제로 서품되기 1년 전인 1927년에는 ‘성모의 기사회’(The Knight of the Immaculate)를 창설하여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심과 사랑의 삶을 사는 운동을 시작한다. 1927년에는 폴란드의 크라카우(Krakow)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80여명의 수도원 수사들과 함께 원죄 없으신 성모의 도시(The City of Immaculate)를 열고, 그들과 함께 출판 사도직일을 한다.

1930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서 일본으로 간다. 그는 약 9년간을 일본에서 사는 동안,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정원(The Garden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을 열고 성공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1939년에 조국 폴란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는 전쟁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한다. 그러다가 1941년에 독일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하여 체포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수송되기에 이른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약 석 달간을 배고픔, 고통, 매맞음, 모욕 등을 견디면서 중노동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는 극도의 힘든 수용소 생활에서도 같은 수용소 동료들을 위하여 격려, 위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같은 해 7월 31일에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자, 수용소 경비대는 같은 구역 내에서 무작위로 열 사람을 추출하여 아사감방에 보내게 되었는데, 콜베 신부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은 가톨릭사제라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신원을 밝히고 자원한다. 그리고 그는 아사감방에서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죽음의 동료들을 위하여 격려, 위로하며 그들의 죽음을 도와주다가, 맨 마지막인 10번째로 주사기에 의하여 평화로이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긴다. 그가 아사감방에 넣어진지 2주가 되던 1941년 8월 14일이었다. “벗을 위하여 자기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했던 그는, 진정한 헌신과 열정의 선교사요, 성모님의 아들로서 깊은 신심을 하느님께 바쳤던 사랑과 기도의 순교자였다. 다음은 그가 남긴 편지 중에서 한부분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순명이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의 증거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진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읽어야 할 더 고상한 책을 우리는 모릅니다.”



용서는 사랑의 꽃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설문조사에서 1위인 예수님 다음으로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링컨에게 스탠턴이라는 정적(政敵)이 있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 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라며 나가 버렸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며 재고를 건의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심하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 버려야지요.”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며 통곡하였다.

우리도 종종 용서를 해주고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자신에게 자유와 평



화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다.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을 꽃피워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양선자(아네스)

그림 : 황의성(세레자 요한)

입당송 시편 84(83), 10-11

제1독서 잠언 9, 1-6

회답송 시편 34(33), 2-3, 10-11, 12-13, 14-15 (◎ 9-7)

-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야라. ◎
- 주님을 경외하야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이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도다. 사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
-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마.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네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야라. ◎

제2독서 에페 5, 15-20

복음 환호송 요한 6, 56

◎ 일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서 머무르리라. ◎

복음 요한 6, 51-58

영성체송 요한 6, 51



이 글은 교구 가정사목부
6일까지 천호피정의집에서
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가한 가족들의 체험담이다

진솔한 대화속 뜨거운 가족사랑 · 일치 확인

사랑하는 주님,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양학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가족주말에 가게 된 건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삼촌의 도움으로 가게 된 가족주말은 저와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르지 않는 성적과 엄격하신 아버지와의 크고 작은 마찰로 속 앓이 하던 저에게 부모님과 내내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가족주말은 내키지 않는 제안이었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가운데 도착한 천호 성지에서서의 첫날밤은 같이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가족들의 행복했을 때와 슬펐을 때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지나 갔습니다. 다음날 가족조각을 만들어 볼 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없이 있다가 한 순간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의 시간들 중엔 참 드문 일이었거든요. 울동을 하고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러는 와중엔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살짝 놀랐지만 동생도 많이 놀란듯, 아빠의 울동하시는 모습에 신기하다는 모습을 감추지 않더군요.

예수님,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마지막 날 밤은 잊을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울기도 했던 날이기도 하구요. 가족 서로 용서를 청하며 화해했던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 서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주말에 오기 전까지도 어색하기만 했던 아빠와도 이야기하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동생에게서 다른 모습들을 보고... 새로 만드는 우리 가정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생각과 변화를 갖게 해준 여러 봉사자분들과의 만남도 참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제게 가장 소중한 뿌리는 가족이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족주말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주말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자녀

국산, 중국산 삼베 판매
삼베 수의복 전문
수의복 제작(맞춤) 판매
명주, 인조 판매
김정남(모니카)
☎ 011-9645-5154 / 222-5154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일시 : 8월 25일(금)
밤 11시~새벽 4시
장소 : 전동 성당
특별강사 : 심요선 요셉(마산교구 회장)
주관 :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윤달 삼베자수 수의
- 맞춤 삼베 면실자수 수의
- 주문 후 24시간 이내 제작 배달
- 명정, 관보, 여상복, 완장, 두건, 행전(무료제공)
주문전화(무료) 080-481-1004
휴대폰 주문 019-419-9312
이원균(더오너시오) 김태숙(벨라벤타)
실버천사마을 작은 섬터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 · 재혼)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성소식별 미술 LD피정
일시 : 9월 9일(토)~10일(주일)
장소 : 광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회비 : 3만 2천원
문의처 : 대구교구 베네딕도 수녀원
011-519-3431, 053-313-3431

**원더랜드 어린이집
원더랜드 외국어학원**
원더랜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더랜드 외국어학원에서
매일 30분씩 2회 수업 실시
장동철(아오스딩) 김은숙(까리파스)
문의 : 272-8415, 251-8415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샬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
문의 : 032-875-3240
www.hschild.or.kr

신부)에서 지난 8월 4일부터
 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새
 아래 열린 '가족주말'에 참



용서받고 용서해주며 '새로운 집' 출발

한여름의 절정에 와있는 계절에 나는 시원한 천호성지에서 '가족주말'이라는 아름다운 2박3일을 보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가족의 내면의 세계에 빠져보고, 나 아닌 남편, 아들, 딸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듣고, 입장을 바꾸어 역할을 해보고, 차마 살아가면서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용서를 청하고 싶었던 일,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다시 한번 더 사랑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맘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짧은 일정을 통해 10여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해 있던 생각들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부모인 우리와 힘들어하던 중학생인 딸아이가 너무도 많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파하고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맘이 있었고, 동생에게도 미안한 맘을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본인이 변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아아,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그 동안 미안함을 알면서도 표현할 수 없었고, 용서를 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자존심이라는 벽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 보파리를 풀어놓을 수 있어 좋고, 기쁘고, 감사하다.

남편 역시 나 혼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말이었다고 한다. 대화의 기법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지금까지는 나부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내 주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걸 즉, 내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걸 배웠다고 한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용서하는 방법을 몰랐노라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부터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용서에 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며 감사한다.

가족이 있어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는 딸아이, 지금까지 가족들끼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아들을 보며 참으로 소중한 가족주말을 보냈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하다.

현실에서는 시간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소홀하게 넘기고 '나 자신만 믿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가족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맘으로 비록 지금이 시작이지만 이곳에서 새로 지은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

'즐거움의 샘' 가족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 수녀원 세미나**
8월 21일(월), 24일(목) 오후 2시
- **성지순례 사목연수**
8월 21일(월)~22일(화) 정하상 교육회관
- **전국 가톨릭 간호사회 및
간호대학생 대의원 연합피정**
8월 26일(토)~27일(주일) 천호

미사 · 행사 · 모임

- **전가대연 통일학교**
8월 21일(월)~22일(화) 해월리
- **가톨릭 센터 건축회의**
8월 23일(수) 오후 2시
-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후원회 미사**
8월 24일(목) 오전 10시 덕진
- **혼인강좌**
8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동전주하나회 미사**
8월 27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교육 · 피정 · 연수

- **초 · 중고 봉사자 하계 연수**
8월 25일(금)~26일(토) 해월리
- **레지오 소년Pr. 성인간부 연수**
8월 26일(토) 오후 3시 전동교육관
- **교구 기지단 하계연수**
8월 26일(토)~27일(주일)
- **가톨릭신학원 2학기 개강일시**
교리교육과 1학년 : 8월 30일(수) 오전 10시,
2학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신앙연수과 1학년 : 8월 30일(수) 오후 7시,
2학년 8월 28일(월) 오후 7시
성서교육과 1학년 : 8월 29일(화) 오전 10시,
2학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성서연수과 전주본원(주/야간) :
8월 31일(목) 오전 10시, 오후 7시
군산분원 8월 28일(월) 오전 10시 나운동
익산분원 8월 28일(월) 오전 10시 창인동
남원분원 8월 31일(목) 오전 10시 쌍교동
등록금 2학기 납부 안내
납부기간 : 7월 10일~8월 25일
납부방법 : 신학원 행정실 또는 무통장 입금
전북은행 505-13-03175330(채)전주교유지재단
무통장 입금시 학과, 학년, 학생 이름 기재

- **수녀연합회 9월 연수**
일시 : 9월 11일(월)~12일(화) 1박 2일
주제 :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강사 : 정규한 신부(예수회)
장소 : 씨든 영성의 집 / 회비 1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운동화
출발 : 교구청 오전 9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구쪽 불교회관 앞 오전 9시 30분
신청 : 9월 3일(주일) 중앙성당 277-1714
솔내성당 253-2776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
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흥보곡)
- 1년 정기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사제 추가 인사발령〉

1. 이덕근(사도요한) 광주신학교
→ 나운2동성당 주임
2. 김진화(마태오) 광주신학교
→ 우림성당 주임
3. 이영우(베네딕도) 나운2동성당 주임
→ 광주신학교
4. 김훈(안토니오) 우림성당 주임
→ 광주신학교
5. 김정현(암브로시오) 청소년교육국초중고전담
→ 청소년교육국장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의
사람의 씨든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딸수도회	첫째 (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곤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복흥공소	063-653-8004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창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7049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를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신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셋째 주일 오후 2시	아중성당수녀원	063-244-6762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여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진 길음동 본원	02-919-2754
끼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이고의 집	063-214-4041

좋은 영화 - 호로비츠를 위하여
8월

일시 : 8월 23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08분
관람비 : 천원

가난하고 불우하지만 절대음감을 가진 천재포마 아이와 꿈과 이상이 컸던 피아노 선생님과 아름다운 사랑과 모성을 다룬 이야기로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협력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나눌수 있는 영화.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 내역 (8/6~12)

- 재경신우회 배광선 100,000
- 재경신우회 정병식 10,000
- 유앤아이건설(주) 1,000,000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택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향

- ◎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님! 주님! 어둠을 밝히소서!"
- ◎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 1. 오늘 ① 성인복사회 ② 안나화 ③ 아가페회
- 2. 금주 모임 ① 선교분과 교육 23일(수) 후 8시 ② 사도모임 25일(금) 미사 후 ③ 애명회 모임 25일(금) 후 8시 3. 감사 헌금: 신상우 10만
-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만 바치기 (막바지 마감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 아름다운 주님 성전을 봉헌합시다): 715,235원(+ 1,925원)
- 5.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이춘자 안나 가정 / 장준기 베드로 황봉애 엘리사벳 가정
- 6. 성전신축헌금: 이영진 200만, 김문규, 서정애(인원) 각 100만, 장준기, 박순덕(운봉) 각 20만, 박복남(운봉), 배인순(운봉) 각 10만
- 7. 차주 ① 성전신축 2차 헌금 ② 모니카회 모임
- 전례분과 모임 ④ 사목회 단합모임
- 지난주 봉헌금: 814,400원 ■ 교무금: 545,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8월 넷째주간: 욥기8장-14장
- ◎ 본당50주년 목주기도봉헌: 금주1,250만, 계243,414만
- ◎ 교구청 신축헌금 봉헌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집니다.
- ◎ 성당청소: 8월26일(토) - 한수리, 상목반
- 1. 모임: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애명회-8월25일(금) 전10시 미사 후
- 2. 금주전례: 해설-김연홍, 독서-임가영 부부 봉헌-강금자, 문금숙. 기도-김경숙 부부
- 3. 차주전례: 해설-김기욱, 독서-변상욱 부부 봉헌-양호일 부부. 기도-권장순, 김순득
- 지난주 봉헌금: 816,000원 ■ 교무금: 574,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문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 ◎ 호프 바자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금주모임: 테레사회-미사후, 애명회-22(화), 성모회-23(수)
- 2. 차주모임: 꾸리아-미사후,
- 3. 금주전례: 해설-박미숙, 독서-김은자 정준일
- 4. 차주전례: 해설-신민호, 독서-윤순임 김용기
- 5. 청 소: 금주-평화의 모후Pr., 차주-가난한이들의 모후Pr.
- 6. 차량봉사: 금주-5조 차주-1조(안전운행)
- 지난주 봉헌금: 774,700원 ■ 2차 헌금: 322,500원
- 교무금: 790,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6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gyo.org

- ◎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한 6,58).
- ◎ 전 신자 성지순례(9월17일): 순례지 - 절두산성지, 참가비-10,000원 사무실에 8월 27일(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 사목회 단합대회: 각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제단체장 - 27일(일) 교중미사 후
- 1. 모임인내: 애명회, 성모회, 요셉회 - 20일(일) 교중미사 후
- 2. 불우이웃돕기 일일호프: 8월25일(금) 오후 5시부터, 성당 정자나무카페에서 티켓 - 3,000원, 많은 협조바랍니다.
- 3. 성서연수와 2학기 개강안내: 31일(목) 전 10시, 수강료 - 70,000원
- 4. 성경 통독: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준비물 - 성경책과 필기도구.
- 5.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만 봉헌운동: 현재 240,030만
- 6.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입액: 155,664,000원, 납입액: 88,931,000원
- 7. 감사헌금: 정윤경-100,000원 김명순-70,000원 익 명-50,000원 익 명-40,000원
- 지난주 봉헌금: 2,100,150원 ■ 교무금: 1,882,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김태윤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김길용
민들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8월 20일(일) 오늘은 그동안 애써주신 김태윤(안드레아) 신부님을 위한 송별미사입니다. 새벽미사는 있으며, 공소미사는 없습니다.
- ◎ 8월 27일(일)은 새 신부님을 위한 환영미사이며, 만남의 날입니다. 식당봉사는 선인동지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 1. 모임: ① 27일(일) 대건회
- 2. 105년사 후원: 마령공소, 군하2반, 군상6반, 구동수(베드로)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71,364만
-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정성을 보입시다.
- 3. 성서를 통독합니다.
- 4. 금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황일주, 신광일
차량봉사: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5.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전찬열, 김순자
차량봉사: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홍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신태근

- 1. 공소미사: 삼길 - 오늘 후 7시, 신전 - 차주 후 7시
- 2. 구역모임 ① 관촌 1,2,3 - 23일(수) 후 8시
② 관촌 4,5 - 25일(금) 후 8시
- 3.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이복덕(요셉파나) - 5만원
- 4. 차주전례: 해설 - 윤영자, 독서 - 신태근, 신순자,
봉헌 - 전막동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52,800원 ■ 교무금: 430,000원
- 2차헌금(선교사 돕기): 227,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정승현
F A X: 351-0606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 오늘은 계복신자 초대주일
- 1. 주임신부 인사 이동: 정승현 요셉 신부님이 광주신학교로 가고 엄기봉 베드로 신부님이 오십니다
- 2. 성심부녀회: 오늘(20일) 모임미사 후
- 3. 주간 축일: 24일(목)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 4. 반모임: 25일(금) 연동, 내동, 조신, 쌍암, 삼교 공소 구역
- 5. 초종교 봉사자 하계 연수: 25-26일 해월리 피정의 집
- 6. 다음 주일: 엄기봉 베드로 본당신부님 환영미사
- 7. 다음 주일 전례봉사: 엄정선, 김제일, 안옥선, 심현천, 양승현
- 8.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정순이 안나
- 9. 감사헌금: 염문오 다니엘 50만
- 10. 수재민 돕기 성금: 빈순희 2만
- 11. 선교사 돕기 2차 헌금: 247,060원
- 지난주 봉헌금: 696,400원 ■ 교무금: 20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종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다음 주(27일) 후 2시 외국인을 위한 미사 있습니다.
- ◎ 8월 15일 나눔잔치에 수고해주신 여성분과에 감사 드립니다.
- 1. 금주공소미사: 상동 차주: 번암
- 2. 금주참성공소: 수분 차주: 상동
- 3. 금주전례: 김원순(누실라) 차주: 장요섭(요셉)
- 4. 금주독서: 이범수(사도요한), 이혜순(사비나)
차주독서: 이경준(베네딕토), 김미숙(마리아)
- 5. 금주봉헌: 이완근(라우렌시오), 박덕순(테레사)
차주봉헌: 이영기(마태오), 김원남(아가다)
- 6. 차량봉사자: 금주 - 박충기 차주 - 장요섭
- 지난주 봉헌금: 448,000원 ■ 교무금: 270,000원

- 3. 23일(수) 미사는 인수인계 관계로 9시에 있습니다.
- 4. 금주봉헌: 송재인 안드레아 부부
차주봉헌: 유종명 미카엘 부부
- 5. 성당청소: 은총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946,000원 ■ 교무금: 1,02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8월 12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이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나바위, 고산, 인후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신평, 나운 2동, 금암동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중앙, 월명동, 용안, 복자, 대야,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소양, 숲정이, 서신동, 영등동, 영등소라 신동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679,837	44.53%
사제단	1,000,000	988,484	98.85%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44,719	36.31%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8,434,848	46.86%

알려드립니다

춘천 · 원주 · 마산교구장, 수재의연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위치한 춘천 · 원주 · 마산교구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주교구에서 마련해 전달한 수재의연금 6,000만원(춘천교구 3,000만원, 원주교구 2,000만원, 마산교구 1,000만원)에 대해 3곳 교구장 주교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실의에 잠긴 수재민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2차헌금을 참여 해주신 교구민들의 뜨거운 형제적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 어울 한마당’ 취소

그동안 숲정이를 통해 수차례 공지해드린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 어울한마당’은 사제평의회 회의 결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기증품 접수도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